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에 대한 종단적 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ACLM)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Work-Parenting Gains and Strains for Dual-Earner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Application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CLM) an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1차원고접수: 2024.04.10. 수정원고접수: 2024.06.03. 최종게재결정: 2024.06.23.

신혜용¹ · 박지현² · 이강이³ · 박유정⁴

^{1,2}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³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⁴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Shin, Hye-Yong¹

Park, Jihyeon²

Lee, Kangyi³

Park, Youjeong⁴

^{1,2,3,4}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이점과 갈등 인식 수준이 종단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2차(초5) ~ 14차(중1)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취업 중인 부모 400쌍(800명)의 응답을 자기회귀교차지연(ACLM)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일-양육 양립 시 이점 인식은 부모 모두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다소 낮았으며, 갈등인식은 부모 모두 중간값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다소 높았다. 둘째, 부모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인식은 다음 해 본인의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인식은 다음 해 어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인식은 다음 해 아버지의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모가 각자 인식하는 일-양육 부담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부가 서로의 조력자로서 일과 양육의 지속적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한국아동패널, 일-양육 양립, 맞벌이 부모,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LM),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종단연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erceived gains and strains experienced by dual-earner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in balancing work and parenting have an impact not only on themselves but also on their spouses over time.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12th to 14th waves), involving 400 pairs of parents(800 individuals) with both parents employed, responses were analyzed through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ACLM) an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work-parenting gains were generally higher than the medium for both parents, with mothers slightly lower than fathers, whereas perceptions of the strains were generally lower than medium for both parents, with mothers slightly higher than fathers. Second, the perceived gains and strains of parents in balancing work and parenting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own perceptions the following year. Third, while fathers' perceptions did not influence mothers' perceptions, mothers' perceptions had a positive impact on fathers' perceptions the following year.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communication support to facilitate dual-earner parents in maintaining a continual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responsibilities as collaborative partners.

Key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ork-parenting, dual-earner parents, ACLM, APIM, longitudinal study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박지현 (Park, Jihye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pjh1189@sn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사회진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임양미, 2022).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2%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53.3%를 차지했다(통계청, 2022).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절반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주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임양미, 2022), 국가에서도 출산지원제도, 돌봄지원제도, 유연근로제도 등을 통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직장가정 양립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Lavassani & Movahedi, 2014).

일-가정 양립은 직장가정 두 영역에서 일어나는 역할 요구가 상호 양립할 때를 의미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이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의 경우, 가정의 양육과 직장의 업무 간 역할 요구의 양립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즉 직장인과 부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한 개인에게 업무와 자녀 양육의 요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을 일-양육 양립이라고 한다(하쾌남, 2016). 맞벌이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에 있어 이점을 느끼기도, 갈등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를 각각 일-양육 이점(work-parenting gains)과 일-양육 갈등(work-parenting strains)이라고 정의한다(연은모, 최효식, 2018; Marshall & Barnett, 1992).

초기 일-양육 양립에 대한 관점은 여성학, 모성 보호적 차원이 대부분이었으나(박기남, 2009), 최근엔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성별에 따른 가족 역할의 체계가 모호해지고 아버지의 양육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송경석, 장영은, 박정윤, 2017). 따라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즉 맞벌이 부부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 그중에서도 일과 양육의 양립을 다룬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인식을 개별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그중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인식만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기쁘다, 2020; 김안나, 권영숙, 2014; 박봉선, 엄명용, 2016; 박주희, 2015; 이아름, 2020; 이완정, 2009; 최연화, 조복희, 2007),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김연하, 장옥, 서홍우, 2019; 이슬기, 전귀연, 김수정, 2007).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이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과 집행기능 곤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어머니의 일-양육 이점은 자녀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인다고 보고해 왔다(기쁘다, 2020; 김안나, 권영숙, 2014; 이아름, 2020; 이재희, 김대욱, 2020).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 대상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김연하와 동료들의 연구(2019)에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점 및 갈등 인식 정도에 따라 아버지들을 유형화 하였는데, 갈등이 낮고 이점을 높게 인식한 아버지들의 부부 갈등 및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점이 낮고 갈등을 높게 인식한 아버지들의 부부 갈등 및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맞벌이 부모가 인식하는 일-양육 이점과 갈등이 자녀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부이자 부모의 관계로서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밀접한 유대를 보이는 가족 구성원이다.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은 가족을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된 체계이자 하나의 역동적인 정서 체계로 바라본다(Cox & Paley, 1997; Kerr & Bowen, 1988). 상호 맞물린 관계인 가족 구성원들은 자율적인 심리적 개체로 기능하기보다는 가족 체계 내에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김미라, 하영

윤, 2020). 즉 가족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순환적인 관계이다(Walsh, 1982). 특히 그 관계가 부부이자 부모인 경우, 배우자의 감정이나 행동 변화에 대한 서로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허선영, 2020).

Clark(2000)의 경계이론(border theory)은 개인의 일과 가정 병행을 역동적으로 설명한다. 경계이론에서는 일과 가정 두 영역을 넘나드는 개인을 ‘영역 횡단자(border-crossover)’로 정의하고, 각 영역 내에서 개인이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영역 지킴이(border-keepers)’로 정의한다(김은석, 2018). 이때 영역 횡단자인 개인은 일과 가정 두 영역을 오가며 마주하는 여러 요소를 관리하고 협상하면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존재이다(Clark, 2000). 맞벌이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일과 가정의 영역 횡단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배우자로서 가정 영역을 공유하며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서로의 영역 지킴이가 되기도 한다.

경계이론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와 기준을 가지며 개인이 각 영역에서의 책임을 통합하고 분리하는 방식에 편안함을 느낄 때 균형이 달성된다. Clark(2002)는 이 균형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일-가정의 양립의 의미를 구성하고 두 영역 간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역 횡단자인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일과 가정을 넘나들며 소통을 통해 각 영역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간다(김은석, 유성경, 임인혜, 박찬정, 임지숙, 2017). 특히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에게 일과 양육의 균형은 영역 횡단자인 개인의 과제인 동시에, 서로의 가정 영역 지킴이인 부부 공동의 과제가 된다(김은석, 2018).

부부 개인은 일과 가정의 영역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갈등만을 지각하거나 이점만을 지각하기보단 일-양육 양립의 갈등과 이점을 모두 지각할 수 있다(김난주, 권태희, 2009; 김연하 등, 2019; 이승미, 구혜령, 2013). 이때 가정에서의 양육은 부모가 함께 겪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특성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정, 이지현, 2005; 박선주, 강민주, 2017; 손영빈, 윤기영, 2011;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홍예지, 이순형, 2017).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족 내에서 분업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개인이 일-가정 양립에 더 큰 이점을 느끼는 반면, 갈등은 적게 느낀다는 선행 연구들(Kessler & McRae, 1982; Marshall & Barnett, 1992; Tiedje et al., 1990)은 부부가 서로의 일-양육 양립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을 한 몇몇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일-가정 양립이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이한나와 한정원(2018)은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본인과 배우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일-가정 이점 인식이 높을수록, 갈등 인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았으나 어머니의 인식은 아버지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은모와 최효식(2019)은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이점 및 갈등이 본인과 배우자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가정 이점 인식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 인식만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은모와 최효식(2018)은 맞벌이 부모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개인의 일-양육 이점과 갈등 인식은 본인의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상대방효과에 있어선 아버지의 인식만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맞벌이 부모 개인의 일-양육 양립 인식이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이점 및 갈등의 인식 자체에 대해 맞벌이 부모가 스스로, 그리고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 쌍을 대상으로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이점 인식과 갈등 인식이 본인과 배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을 통해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일-양육의 양립 인식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구체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이완정, 2009), 직장환경 및 양육 시간(최연화, 조복희, 2007) 등과 일-양육 양립과의 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6세 이하 (47.5%), 7 ~ 12세(55.3%), 13 ~ 17세(59.4%) 순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통계청, 2022). 이러한 비율은 일-양육의 양립이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긴 기간 지속됨을 보여주며,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양육 양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과정은 부모에게도 학부모로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입시와 학습의 부담감이 증가하고 서열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이다(엄선영, 이강이, 2012). 특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기간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데, 청소년기 자녀의 급속한 사회·정서적 변화를 함께하는 부모 역시 이전과는 다른 부모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한다(최미경 등, 2008). 또한, 통계청 (2021)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 중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때는 초등 5학년으로,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다. 이는 곧 중학교로 올라갈 자녀의 입시와 성적에 대해 부모의 기대와 부담이 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장 과도기를 거치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는 다양한 변화와 마주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시간적 자원이 부족한 맞벌이 부모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가정 사이 역할 긴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양육 양립에 대하여 초기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주로 횡단적으로 이루어졌다(연은모, 최효식, 2019; 홍예지, 이강이, 2020). 맞벌이 부모의 일-양육 양립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소수의 연구는 대부분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기에 맞벌이 부모의 일-양육 양립 인식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간 종단적인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초2 ~ 초4)를 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한결의 연구(2024)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과 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조혜영과 권정윤의 연구(2022)에서는 일-가정 양립 인식이 사회적 지지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때문에, 자녀의 청소년기 진입 따라 맞벌이 부부가 일-양육의 양립을 어떻게 인식해 가는지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겪는 일-양육 양립 인식에 대해 종단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인식하는 일-양육 양립 시 이점의 종단적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인식하는 일-양육 양립 시 갈등의 종단적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의 12차년도(2019년, 초5)부터 14차년도(2021년, 중1)까지의 부모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매년 1차례씩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 단위의 대표성이 확보된 종단자료이다. 분석 대상 기간인 3년(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취·학업 상태에 대해 ‘취업 중(휴직 중 포함)’이라고 응답한 401쌍을 추출하였고, 3개년도 조사에 한 번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1쌍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0쌍(80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12차년도, 만11세) 기준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 7.52%, 40대 84.21%, 50대 8.27%로 평균 연령은 44.59($SD = 3.69$)세였고,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21.75%, 40대 76.25%, 50대 2.00%로 평균 연령은 42.10세($SD = 3.56$)로 나타났다. 2019년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400만 원($SD = 196$)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자녀 성별은 남아가 47.88%, 여아가 52.12%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일-양육 이점

일-양육 이점 문항은 맞벌이 부모에 해당하는 개인이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인식 수준에 관한 Marshall과 Barnett(1993)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시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평균 점수로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양육의 병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차 자료(2019년)부터 14차 자료(2021년)까지의 일-양육 이점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어머니의 경우 .85, .87, .87이며, 아버지의 경우 .85, .88, .86이다.

2) 일-양육 갈등

일-양육 갈등 문항은 맞벌이 부모에 해당하는 개인이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갈등 수준에 관한 Marshall과 Barnett(1993)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시로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평균 점수로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양육의 병행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12차 자료(2019년)부터 14차 자료(2021년)까지의 일-양육 이점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어머니의 경우 .88, .89, .88이며, 아버지의 경우 .83, .87, .88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A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 주요 변인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값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모가 일-양육 병행에서 느끼는 이점, 갈등 각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상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이하 ACLM)을 기반으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1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모형과 그림 2의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모형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호 인과적 방향성을 지니는지를 표준화된 점수로 추정하였다.

최적의 분석모형을 찾기 위해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모형과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모형 모두 측정 동일성의 제약, 경로 동일성의 제약, 오차공분산 동일성의 제약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각 제약을 추가할 때마다 제약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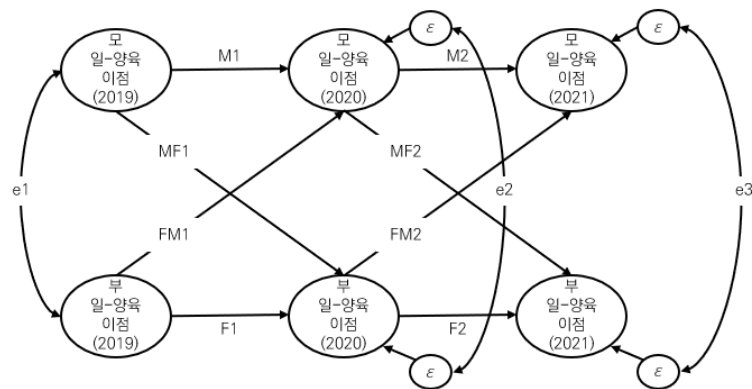


그림 1.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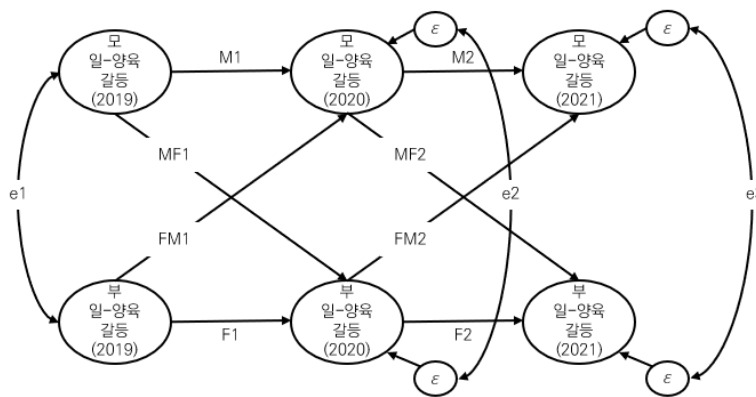


그림 2.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모형

전 모형과 제약 이후 모형을 비교하였다(허선영, 2020).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χ^2) 통계량과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 상대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의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RMSEA값은 0.5 이하(Browne & Cudeck, 1992), TLI와 CFI값은 0.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보았으며(박수원, 김선헌, 2016; Hu & Bentler, 1999), 모형 비교 결과에 대해서 CFI값이 .010, RMSEA값이 .015 이상으로 나빠지지 않으면 동등화 제약이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hen, 2007; Cheung & Rensvold, 2002).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2019년(12차년도, 초5), 2020년(13차년도, 초6), 2021년(14차년도, 중1)의 3년간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양육 이점 인식 수준에 대하여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년도 순서대로 3.98점($SD = .63$), 3.94점($SD = .67$), 3.88점($SD = .69$),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3.60($SD = .66$), 3.63($SD = .72$), 3.62($SD = .72$)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 3점 후반으로 중간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일-양육 갈등 인식 수준에 대하여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년도 순서대로 2.10점($SD = .65$), 2.04점($SD = .68$), 2.12점($SD = .71$),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2.38($SD = .75$), 2.38($SD = .74$), 2.28($SD = .72$)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 2점 초반으로 중간값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값은 $-.89 \sim .57$ 이고, 첨도값은 $2.18 \sim 5.43$ 이었다. 왜도값과 첨도값 모두 절댓값이 각각 3 미만, 10 미만이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2.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1) 분석모형의 동일성 검증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기에 앞서, 각 분석모형의 측정 동일성(요인 부하량), 경로 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김계수, 송태민, 2012). 각 분석모형의 검증 순서는 표 1과 같다. 먼저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1에 측정 동일성 제약을 추가하여 각 시점의 변수가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검증했다(김계수, 송태민, 2012). 이어서, 추정된 자기회귀계수 및 교차지연계수가 시점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경로 동일성 제약과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차례로 추가했다(허선영, 2020). 총 8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각 제약을 추가할 때마다 제약 이전 모형과 제약 이후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른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분석모형의 동일성 제약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 동일성의 경우 모형1과 모형2($\Delta\chi^2(df) = 13.06(6), p < .05$), 모형2와 모형3($\Delta\chi^2(df) = 12.67(6), p < .05$)의 χ^2 차이검증 값이 .05수준에서 유의하긴 했으나, 모형1, 모형2, 모형3의 모형적합도에서 CFI값이 .010, RMSEA값이 .015 이상으로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다음 일-양육 양립 시 이점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변수 각각의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추가한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의 경우, 순차적으로 모형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검증값이 유의하지 않았고 CFI와 RMSEA값도 변화가 거의 없어 경로 동일성도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8을 모형7과 비교한 결과는 .05 수준에서 유의

표 1.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 분석모형의 동일성 제약에 따른 적합도 비교

모형	설명
1	비제약 모델(기저모형)
2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 측정 동일성 제약 추가
3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 측정 동일성 제약 추가
4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제약 추가
5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제약 추가
6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에서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의 교차지연계수 동일성 제약 추가
7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에서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의 교차지연계수 동일성 제약 추가
8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과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갈등의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 추가

표 2.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분석모형의 동일성 제약에 따른 적합도 비교

	χ^2	df	TLI	CFI	RMSEA	△모형 비교	$\Delta\chi^2(df)$
모형1	581.732***	241	.924	.933	.060(.053 ~ .066)		
모형2	594.792***	247	.924	.932	.059(.053 ~ .066)	1 vs 2	13.06(6)*
모형3	607.467***	253	.924	.931	.059(.053 ~ .065)	2 vs 3	12.67(6)*
모형4	607.685***	254	.925	.931	.059(.053 ~ .065)	3 vs 4	0.22(1)
모형5	608.657***	255	.925	.931	.059(.053 ~ .065)	4 vs 5	0.97(1)
모형6	609.299***	256	.926	.931	.059(.053 ~ .065)	5 vs 6	0.64(1)
모형7	609.785***	257	.926	.931	.059(.053 ~ .065)	6 vs 7	0.49(1)
모형8	617.767***	259	.925	.930	.059(.053 ~ .065)	7 vs 8	7.98(2)*

* $p < .05$, *** $p < .001$.

했으나($\Delta\chi^2(df) = 7.98(2)$), 모형적합도에서 CFI값이 .010, RMSEA값이 .015 이상으로 나빠지지 않았기에 모형8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분석모형의 동일성 제약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 동일성의 경우 모형1과 모형2, 모형2와 모형3의 χ^2 차이검증 값이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적합도에서 CFI와 RMSEA값의 변화도 거의 없어 측정 동일성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다음 일-양육 양립 시 갈등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변수 각각의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추가한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도 역시 순차적으로 모형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검증값이 유의하지 않았고 CFI와 RMSEA값도 나빠지지 않아 경로 동일성도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모형8의 경우, 모형7과 비교한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하긴 했으나($\chi^2(df) = 16.45(2)$), 모형적합도에서 CFI값이 .010, RMSEA값이 .015 이상으로 나빠지지 않았기에 모형8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위 결과를 토대로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모형과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모형 모두 아버지의 이점/갈등 변수와 어머니의 이점/갈등 변수의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8을 최종 분석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 합

치도 지수인 카이자승 검증과 모형의 적합지수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간명성을 고려한 CFI(비교부합지수), TLI(비표준 부합치), RMSEA(모집단 원소 간 평균 차이)를 사용하였다. 카이자승 검증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만 표본 수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홍세희, 2000),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사용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CFI는 .9이상이면 적절한 합치도라 할 수 있으며(Hu & Bentler, 1999), TLI는 .8이상인 경우 양호한 적합도라 볼 수 있다(Bagozzi & Yi, 1988). 마지막으로,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합치도라 볼 수 있는데 .05보다 작으면 매우 좋으며 .08보다 작으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모형의 경우, 최종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이 617.767($df = 259$)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RMSEA가 0.059(C.I.: .05 ~ .07)로 양호한 수준이며 TLI(.925)와 CFI(.930)도 좋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모형의 경우, 최종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이 1616.764($df = 609$)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RMSEA가 0.064(C.I.: .06 ~ .07), CFI가 .875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TLI(.879)도 .9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 자료에 적합할 것으로

표 3.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분석모형의 동일성 제약에 따른 적합도 비교

	χ^2	df	TLI	CFI	RMSEA	△모형 비교	$\Delta\chi^2(df)$
모형1	1576.029***	583	.871	.881	.065 (.061 ~ .069)		
모형2	1584.682***	593	.874	.881	.065 (.061 ~ .069)	1 vs 2	8.65(10)
모형3	1598.360***	603	.875	.881	.064 (.061 ~ .068)	2 vs 3	13.68(10)
모형4	1599.453***	604	.876	.881	.064 (.060 ~ .068)	3 vs 4	1.09(1)
모형5	1600.233***	605	.876	.876	.064 (.060 ~ .068)	4 vs 5	0.78(1)
모형6	1600.313***	606	.876	.881	.064 (.060 ~ .068)	5 vs 6	0.08(1)
모형7	1600.313***	607	.877	.881	.064 (.060 ~ .068)	6 vs 7	0.00(1)
모형8	1616.764***	609	.879	.875	.064 (.061 ~ .068)	7 vs 8	16.45(2)***

*** $p < .001$.

판단하였다.

2)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4와 같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양육 이점 인식 수준이 다음 연도 본인의 일-양육 이점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당해 자신의 이점 인식 수준은 다음 연도 본인의 이점 인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_{2019 \rightarrow 2020} = .43$, $\beta_{2020 \rightarrow 2021} = .44$, $p < .001$). 어머니 역시 당해 이점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연도 이점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2019 \rightarrow 2020} = .48$, $\beta_{2020 \rightarrow 2021} = .51$, $p < .001$).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양육 병행의 이점을 높게 인식할수록 다음 연도에도 일-양육 병행의 이점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양육 이점 인식 수준이 다음 연도 배우자의 일-양육 이점 인식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교차지연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아버지의 당해 일-양육 이점 인식 수준은 다음 연도 어머니의 일-양육 이점 인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2019(f) \rightarrow 2020(m)} = .02$, $\beta_{2020(f) \rightarrow 2021(m)} = .02$, $p = .27$). 반면, 어머니의 당해 일-양육 이점에 대한 인식은 다음 연도 아버지의 일-양육 이점 인식에 정적인 교차지연효과를 보였다($\beta_{2019(m) \rightarrow 2020(f)} = .08$, $\beta_{2020(m) \rightarrow 2021(f)} = .08$, $p < .01$). 즉 어머니가 일-양육 병행의 이점을 높게 인식할수록 다음 연도에 아버지가 일-양육 병행의 이점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3)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5와 같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 인식 수준이 다음 연도 본인의 일-양육 갈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버지 일-양육 갈등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

표 4. 일-양육 양립시 이점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β	S.E.	z
아버지 일-양육 이점 ₂₀₁₉₋₂₀₂₀	.46	.43	.04	11.21***
아버지 일-양육 이점 ₂₀₂₀₋₂₀₂₁	.46	.44	.04	11.16***
어머니 일-양육 이점 ₂₀₁₉₋₂₀₂₀	.52	.48	.04	12.91***
어머니 일-양육 이점 ₂₀₂₀₋₂₀₂₁	.52	.51	.04	12.91***
아버지 일-양육 이점 ₂₀₁₉ → 어머니 일-양육 이점 ₂₀₂₀	.02	.02	.04	0.47
아버지 일-양육 이점 ₂₀₂₀ → 어머니 일-양육 이점 ₂₀₂₁	.02	.02	.03	0.47
어머니 일-양육 이점 ₂₀₁₉ → 아버지 일-양육 이점 ₂₀₂₀	.08	.08	.04	2.25**
어머니 일-양육 이점 ₂₀₂₀ → 아버지 일-양육 이점 ₂₀₂₁	.08	.08	.04	2.24**

** $p < .01$, *** $p < .001$.

표 5. 일-양육 양립시 갈등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β	S.E.	z
아버지 일-양육 갈등 ₂₀₁₉₋₂₀₂₀	.58	.53	.03	15.83***
아버지 일-양육 갈등 ₂₀₂₀₋₂₀₂₁	.58	.57	.04	15.43***
어머니 일-양육 갈등 ₂₀₁₉₋₂₀₂₀	.62	.60	.03	19.50***
어머니 일-양육 갈등 ₂₀₂₀₋₂₀₂₁	.62	.67	.03	19.78***
아버지 일-양육 갈등 ₂₀₁₉ → 어머니 일-양육 갈등 ₂₀₂₀	.05	.03	.03	1.10
아버지 일-양육 갈등 ₂₀₂₀ → 어머니 일-양육 갈등 ₂₀₂₁	.05	.04	.04	1.10
어머니 일-양육 갈등 ₂₀₁₉ → 아버지 일-양육 갈등 ₂₀₂₀	.09	.11	.03	3.11**
어머니 일-양육 갈등 ₂₀₂₀ → 아버지 일-양육 갈등 ₂₀₂₁	.09	.11	.03	3.13**

** $p < .01$, *** $p < .001$.

면, 당해 일-양육 갈등의 인식 수준이 다음 연도 본인의 일-양육 갈등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_{2019 \rightarrow 2020} = .53$, $\beta_{2020 \rightarrow 2021} = .57$, $p < .001$).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 또한 당해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연도 본인의 일-양육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eta_{2019 \rightarrow 2020} = .60$, $\beta_{2020 \rightarrow 2021} = .67$, $p < .001$).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양육 병행의 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다음 연도에도 일-양육 병행의 갈등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 인식 수준이 다음 연도 배우자의 일-양육 갈등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교차지연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아버지의 일-양육에 대한 당해의 갈등 인식은 다음 해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2019(f) \rightarrow 2020(m)} = .03$, $\beta_{2020(f) \rightarrow 2021(m)} = .04$, $p = 1.10$). 반면, 어머니의 당해 일-양육 갈등 인식은 다음 연도 아버지의 일-양육 갈등 인식에 정적인 교차지연효과를 보였다($\beta_{2019(m) \rightarrow 2020(f)} = .11$, $\beta_{2020(m) \rightarrow 2021(f)} = .11$, $p < .01$). 즉 어머니가 일-양육 병행의 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다음 연도에 아버지가 일-양육 병행의 갈등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일-양육을 양립하는 데 있어 인식하는 이점과 갈등 수준이 종단적으로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12차; 초5)부터 2021년(14차; 중1)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양육 이점에 대한 인식 수준은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체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이점 인식 수준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양육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중간값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갈등 인식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와 9차년도 자료를 분

석한 백순근과 동료들(2019)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중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일-양육 양립 이점은 더 낮고, 갈등은 더 높게 인식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 우리나라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자녀 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남아있음을 고려했을 때(서석원, 이대균, 2014),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일과 양육 사이에서 역할 부담을 더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맞벌이 부모의 자기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본인이 일과 양육 양립에 대해 평가한 이점 및 갈등은 각각 다음 연도 본인의 이점 및 갈등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인식이 본인에게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양은선, 김연하, 2021; 연은모, 최효식, 2018; 조은주, 이소연, 2021). 일과 양육을 병행할 때의 이점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일-양육 양립의 긍정적 경험을 더 부각시켰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갈등적인 측면을 높게 인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가 시간이 지나 일과 양육의 부정적 경험을 더 부각하여 인지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맞벌이 부모의 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의 유의성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3년간 어머니의 일-양육 이점과 갈등 인식은 다음 해 아버지의 일-양육 이점과 갈등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의 인식은 다음 해 어머니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이점 또는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다음 해 자신의 이점 또는 갈등을 더 높게 느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인식한 이점 또는 갈등 수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일-양육 양립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이 배우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력을 지님을 보여주며,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하문선의 연구(2018)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일-양육 양립에 대한 부부간 소통이 상호건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갈등을 불만보다는 개선안으로 전달할 방법을 제공하고,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대화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와 아버지 간 일-양육 양립 인식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맞벌이 부모의 실질적 양육 분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있으며(하문선, 2018), 남성에게는 생계 부양의 책임이, 여성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방지원, 최보윤, 유성경, 김수영, 2022; 최유정, 최미라, 최섯별, 2018). 이에 따라 선행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맞벌이 부모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고 가정과 가까운 직장이나 근무 시간이 더 짧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양육 수행의 비중이 높음을 보고해왔다(김소영, 2020; 류방란, 2015; 조영주, 2019; 최하영, 2022). 따라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일-양육 양립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어머니의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양육 갈등이나 만족감은 절대적인 시간의 양과 같은 양육 수행 자체뿐 아니라 수행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인식에서도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박기남, 2009; 주혜진, 2017). 개인은 보고 경험하는 것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인식하며, 이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대화, 자신이 말하는 이야기 등을 통해 이뤄진다(Bruner, 1990; Weick, 1979). 따라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모는 배우자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생각, 의견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일-양육 양립 경험을 재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보면, 어머니의 인식은 아버지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으나, 아버지의 인식은 어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일-양육 양립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나 의견이 어머니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계이론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부간 의사소통을 제안한다(Clark, 2000). 특히 시간 및 여러 자원에 압박을 느끼는 맞벌이 부모의 경우, 서로의 일과 양육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는 양육 분담에 있어 부부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과도 연결된다(이소현, 박주희, 2021;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관련하여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정미라와 동료들(2015)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부부간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 전반에 대한 권한이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행동을 감독하고 제어한다고 인식할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부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많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이러한 결과는 양육 전반의 권한이 어머니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전환하고 부부가 양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의사소통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뜻을 같이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일-양육 양립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인식에 대하여 이점과 갈등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점 인식과 갈등 인식은 동시에 발생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두 인식 간에 어떠한 역동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본인의 일-양육 이점 인식이 다음 연도 본인의 일-양육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본인의 일-양육 이점 인식이 다음 연도 배우자의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면 이점과 갈등이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시간 관련 변인들을 함께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근무 시간, 가정 내 노동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12차(2019) ~ 14차(2021)년도의 응답으로, COVID-19(코

로나19 바이러스) 기간을 포함하고 있기에 시기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 시기 맞벌이 가정은 돌봄공백 비율이 홀벌이 가정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보고된다(이혜숙, 문진영, 2022). 따라서 이를 메우기 위한 추가 돌봄비 지출, 가정 내 양육 시간 증가 등으로 심리적·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 중 한 개 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 쌍으로 고려하여 모두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했던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일-양육 양립 인식이 배우자의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으므로, 맞벌이 부모의 일-양육 양립 인식 자체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성을 보기 이전에 부와 모 각자의 일-양육 양립 인식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에 먼저 초점을 맞추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함의가 있다. 이는 일-양육 양립 정책에 대하여 개인이 일과 양육의 병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맞벌이 부모가 서로의 조력자로서 일과 양육의 지속적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부부간 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 중에서도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일-양육 양립 인식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맞벌이 비중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가족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일-양육의 균형을 위한 소통의 지원을 제안했다는 함의를 지닌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할 때, 일-양육 양립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 기쁘다 (2020). 취업모의 우울과 일-양육 갈등이 아동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177-197.
<https://doi.org/10.36431/JPE.12.4.9>
- 김계수, 송태민 (2012).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한국복지패널 활용방안: 교차타당성과 자기회귀교차타당 모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2(5), 61-67.
<https://doi.org/10.23062/2012.05.6>
- 김난주, 권태희 (2009).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여성연구*, 76(1), 43-70.
- 김미라, 하영운 (2020).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1(2), 31-51.
- 김소영 (2020). 맞벌이 부부의 통근시간 관련 요인: 첫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 비교. *Human Ecology Research*, 58(2), 255-266.
<https://doi.org/10.22862/kjsr.2018.19.1.002>
- 김안나, 권영숙 (2014).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375-384.
- 김연하, 장욱, 서흥우 (2019).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육아정책연구*, 13(3), 81-98.
<https://doi.org/10.5718/kcep.2019.13.3.81>
- 김은석 (2018). 일-가정 양립 유형화 및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의 가정→일 양립에 대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석, 유성경, 임인혜, 박찬정, 임지숙 (2017).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505-526.
<https://doi.org/10.23844/kjcp.2017.05.29.2.505>
- 김정, 이지현 (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류방란 (2015).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및 정책 방안 (RR2015-0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기남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한국여성학회지*, 25(2), 37-71.
- 박봉선, 엄명용 (2016). 취업모의 직장-가정 역할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4), 7-39.
<https://doi.org/10.16975/kjfs.2016..54.001>
- 박선주, 강민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 <https://doi.org/10.5718/kcep.2017.11.3.87>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https://doi.org/10.14816/sky.2016.27.2.5>
박주희 (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 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41-62.
방지원, 최보윤, 유성경, 김수영 (202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혼 만족에 의해 조절되는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0(3), 55-73.
<https://doi.org/10.7466/JFBL.2022.40.3.55>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손한결 (2024).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이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그릿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31(1), 257-281.
<https://doi.org/10.21509/KJYS.2024.1.31.1.257>
송경석, 장영은, 박정운 (2017). 아버지가 지각한 공동양육태도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의 구조적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35(2), 31-45.
<https://doi-org-ssl.libproxy.snu.ac.kr/10.7466/jkhma.2017.35.2.31>
양은선, 김연하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 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3), 1-14.
<https://doi.org/10.7466/JFBL.2021.39.3.1>
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3), 89-100.
연은모, 최효식 (2018).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497-523.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7.497>
연은모, 최효식 (20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효능감, 자녀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61-285.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6.261>
이소현, 박주희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1(3), 1-21.
<https://doi.org/10.30528/jolss.2021.11.3.001>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1), 35-49.
이승미, 구혜령 (2013). 자녀양육기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 유형과 유형별 특성.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75-591.
<https://doi.org/10.5934/kjhe.2013.22.4.575>
이아름 (2020). 취업모의 일-양육 양립 이점과 자녀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공동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2), 51-71.
<https://doi.org/10.36431/JPE.12.2.4>
이완정 (2009).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7(4), 117-126.
이재희, 김대욱 (2020).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4(3), 263-283.
<https://doi.org/10.32349/ECERR.2020.6.24.3.263>
이하나, 한정원 (2018). 맞벌이 부모가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커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7), 231-238.
<https://doi.org/10.5762/KAIS.2018.19.7.231>
이혜숙, 문진영 (2022).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pp. 1-121.
임양미 (2022).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 및 집행기능 곤란의 다중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1(5), 557-573.
<https://doi.org/10.5934/kjhe.2022.31.5.557>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55-373.
<https://doi.org/10.14698/jkce.2015.11.2.355>
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https://doi.org/10.15284/kjhd.2019.26.4.115>
조영주 (2019). 부부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67-85.
<https://doi.org/10.18205/kpa.2019.24.1.004>
조은주, 이소연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우울증상, 자녀에 대한 분노와 자녀 문제행동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PIM)의 적용. *아시아여성연구*, 60(3), 213-248.
<https://doi.org/10.14431/jaw.2021.12.60.3.213>

- 조혜영, 권정윤 (2022).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지지 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7), 112-120.
<https://doi.org/10.5762/KAIS.2022.23.7.112>
- 주혜진 (2017). ‘젠더화된 (Gendered)’ 행복: 행복감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여성학*, 33(2), 137-180.
<https://doi.org/10.30719/JKWS.2017.06.33.2.137>
- 최미경, 신정희, 구현경, 박선영, 한현아, 최단비 (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최연화, 조복희 (2007). 취업모의 직장환경, 양육시간에 따른 일-어머니 역할갈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3(1), 1-15.
- 최유정, 최미라, 최선헌 (2018). 맞벌이 부부의 역할분담이 일가정 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19(1), 47-93.
<https://doi.org/10.22862/kjsr.2018.19.1.002>
- 최하영 (2022). 일·생활 중첩시간을 고려한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과 일·생활 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부부갈등, 우울,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
<https://doi.org/10.18023/kjece.2015.35.1.007>
- 통계청. (2021). 초등 사교육비 조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act=view&list_no=417176에서 2024년 6월 2일 인출
- 통계청. (2022).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 취업현황. 대전: 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1&list_no=425997&act=view&mainXml=Y에서 2024년 6월 2일 인출
- 하문선 (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갈등,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19(3), 573-600.
<https://doi.org/10.15753/aje.2018.09.19.3.573>
- 하쾌남 (2016). 유아기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균형, 회복탄력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선영 (2020). 노년기 부부의 우울 전이: 종단적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75(2), 189-215.
<https://doi.org/10.21194/kjgsw.75.2.202006.18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예지, 이강이 (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육아정책연구*, 14(1), 97-120.
<https://doi.org/10.5718/kcep.2020.14.1.97>
- 홍예지, 이순형 (2017).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8(2), 37-50.
<https://doi.org/10.5723/kjcs.2017.38.2.37>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 74-94.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s0033291700030555>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https://doi.org/10.1080/1070551070130183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5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https://doi.org/10.1177/0018726700536001>
- Clark, S. C. (2002). Communicating across the work/home border. *Community, Work & Family*, 5(1), 23-48.
<https://doi.org/10.1080/13668800020006802>
- Cox, M. J., &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243-26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48.1.243>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https://doi.org/10.5465/amr.1985.4277352>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Kessler, R. C., & McRae Jr, J. A. (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216-227.

- <https://doi.org/10.2307/2094964>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USA: Guilford Press.
<https://doi.org/10.1080/10705511.2012.687667>
- Lavassani, K. M., & Movahedi, B. (2014). Developments in theories and measures of work-family relationships: From conflict to balance. *Contemporary Research o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2(1), 6-19.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2). Race, class and multiple role strains and gains among women employed in the service sector. *Women & Health*, 17(4), 1-19.
https://doi.org/10.1300/j013v17n04_01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https://doi.org/10.1002/1520-6629\(199301\)21:1<64::aid-jcop2290210108>3.0.co;2-p](https://doi.org/10.1002/1520-6629(199301)21:1<64::aid-jcop2290210108>3.0.co;2-p)
- Tiedje, L. B., Wortman, C. B., Downey, G., Emmons, C., Biernat, M., & Lang, E. (1990). Women with multiple roles: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63-72.
- Walsh, F. (1982). *Normal family processes*. New York: Guilford Press.
- Weick, K. E. (1979).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ing* (2nd ed.). Reading, MA: Addigks son-Wesley.
<https://doi.org/10.3917/mana.182.0189>